



KIA타이거즈가 7일 광주구장에서 1,2군 합동훈련을 갖고 2008시즌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KIA, V10 향한 힘찬 포효

KIA 타이거즈가 7일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V10'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매 시즌마다 우승후보로 꼽히는 KIA는 지난 2005년 창단 이후 첫 꼴찌를 기록한 후 2007시즌에 다시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특유의 기동성과 공격력은 자취를 감췄고 끈끈한 팀워크도 사라지면서 '재미없는 야구'로 팬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었다.

'만년 우승후보' KIA가 올해는 일찌감치 용병영입을 마무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전력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구단 운영의 난맥상과 성적부진의 책임을 물어 프런트와 사령탑을 전면 물갈이한 KIA는 8개 구단 중 가장 먼저 2008시즌 용병 영입을 발표했다. 서재용과 최희섭에 이어 1999년 메이저리그에서 21승을 기록했던 호세 리마(36·우완)와 수비·주루능력이 뛰어난 내야수 윌슨 발데스(30·우타)를 영입하면서 KIA는 4명의 메이저리거를 보유하게 됐다.

서재용의 영입이 없었다면 용병 2명을 모두 투수로 뽑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투수와 타자를 한 명씩 뽑으며 전력의 균형을 이루었다.

전성기가 지난 리마의 영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줄 노련한 투수가 없어 고전해

합동훈련 시작...체력 담금질

메이저 출신 용병 2명 가세

역대 초호화 군단 사기 충전

왔던 KIA가 리마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용병 선발 조건은 일거에 팀 전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최우선이다. 강속구를 장착한 젊은 투수들이 많은 KIA는 팀 전력의 극대화를 위해 메이저 13년의 풍부한 노하우와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다양한 구질을 갖춘 리마를 선택했다.

특급 마무리 한기주와 전병두, 양현종, 진민호, 임준혁 등의 미들과 셋업진을 갖춘 만큼 서재용-리마-윤석민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제 3선발이 시즌 막판까지 이어진다. 고가정하면 마운드의 높이는 8개 구단 최고 수준이다. 군입대 전 셋업맨으로 진가를 발휘했던 유동훈과 '땅아' 김진우까지 환골탈태의 자세로 팀에 가세한다면 철옹성 마운드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장타력을 보유한 타자 대신 수비능력이 빠어나고 주루플레이가 능한 발데스를 영입하면서 수비의 핵인 센터라인의 안정도 꾀하게 됐다. 이는 조범현 감독이 내세운 '뛰는 야구'와도 일맥상통한 선택이다. 이용규, 이현근, 김종국, 김원섭, 발데스 등으로 이뤄진 테이블 세터와 장성호·최희섭으로 연결되는 중심 타선으로 짜임새가 더해졌다.

'명품 유격수'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만큼 발데스가 유격수 자리를 굳건히 해준다면 물설 틈 없는 내야로 투수들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2003년 유격수 최초의 100타점의 신화를 썼던 홍세완의 잦은 부상으로 몇 년 동안 김종국, 손지환, 김민철, 이현근 등이 번갈아 가면서 키스톤 콤비를 이루었지만 KIA의 유격수 자리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우타 거포의 부재다. 스프링 캠프 동안 이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KIA의 큰 숙제다. 대형 트레이더나 과감한 신인 기용 등의 돌파구로 좌·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제 KIA의 한해 농사 '씨뿌리기'는 끝났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선수들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2008시즌 성적표가 달라질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범현 감독 "제발 부상 조심"

"부상없이 프로다운 한 해를."

KIA 타이거즈가 7일 광주구장에서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2008년 대장정에 들어갔다.

조범현 감독은 훈련에 앞서 선수들에게 "프로답게 철저한 물관리를 잘 하며 부상 없이 건강하게 시즌을 마쳐야. 끈질긴 모습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야구를 하자"고 강조했다.

지난 시즌 주전들이 줄줄이 부상해 '부상병동'을 운영해야했던 KIA의 입장에서

는 '건강'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무기력중에 빠져 최하위로 곤두박질했던 만큼 실종된 '근성'을 강조해 팀을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다. 파이팅을 내세워 지더라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경기력을 팬들에게 선사하겠다는 게 조 감독의 생각이다.

광주구장에서 달리기로 몸을 풀며 훈련을 시작한 선수단의 분위기도 한결 고무된 모습이었다. 고참 선수들이 솔선수범을 이끌어 4시간 여의 훈련을 소화하는 등



7일 KIA타이거즈를 이끌어 갈 신인선수 7인방이 구단사무실에서 입단식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태현, 니지완, 최용규, 박진영, 박상신, 박용환, 김선빈.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의욕을 한 출발이었다.

KIA는 이날 오전에 실시된 체력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전지훈련 참가 멤버를 확정하고, 9일부터 60일간의 전지훈련 일정을

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신인선수 7인방이 구단사무실에서 입단식을 갖고 진정된 '호랑이'로 거듭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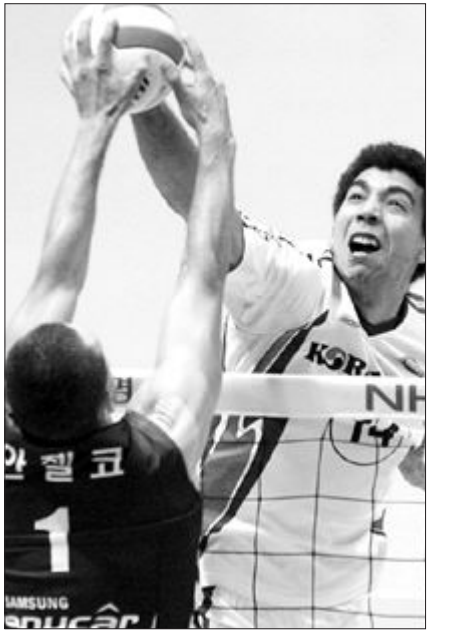
용병 활약에 희비 엇갈린 프로배구

보비·안젤코 있음에 대한항공·삼성화재

'웃고'

실바·존슨 때문에 GS칼텍스·도로공사

'울고'



프로배구 2007-2008 V-리그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외국인 선수의 활약에 각팀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남자부에서는 '저승사자' 보비(대한항공·사진 오른쪽)의 활약이 돋보인다.

208cm의 장신 보비는 1라운드에서는 무릎 부상의 여파로 지난 겨울 공격성과 서브상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2라운드부터는 매 경기 공격성공률을 50% 안팎으로 끌어올렸고 대포알 서브의 위력을 되찾았다.

지난 1일 삼성화재와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23점을 뽑아 안젤코 추크(28득점)와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쳤고 6일 현대캐피탈전에서는 양팀 최다인 29점을 퍼부어 대한항공에 짜릿한 승리를 안겼다.

아직 무릎 부상과 체력 부담으로 폼세를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

삼성화재가 10승1패로 선두를 달리는 데는 크로아티아 출신 공격수 안젤코(사진 왼쪽)의 비중을 빼놓을 수 없다.

안젤코는 현재 득점(220점)과 오픈공격(성공률 48.29%), 서브(세트당 0.484개)에서 선두에 오르고 블로킹(세트당 0.757개)도 2위를 차지하면서 공격과 수비에서 최고의 선수로 떠올랐다. 시즌 초반에는 다소 기록 있는 플레이가 약점으로 꼽혔지만 적극적인 성격으로 한국 무대에 완전히 적응

하면서 특유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부에서는 2위 KT&G의 브라질 출신 페르난다 베티 알비스(190cm)가 화려한 스파이크 실력을 뽐내고 있다.

후위공격(성공률 36.69%) 1위를 기록 중인 페르난다는 지난 5일 도로공사와 3라운드 첫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트리플 크라운(백어택, 서브득점, 블로킹 각 3개)'을 작성하면서 승리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또 선두 흥국생명의 마리 헬렌은 178cm의 단신이지만 용수철 탄력을 앞세워 오픈공격 1위(성공률 34.88%)에 올라 '좌우 샹포' 김연경-황영주를 잘 받치고 있다.

반면 남자부에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4위(5승6패)로 처져있는 LG손해보험은 '스페인 특급' 기예르모 팔라스카의 공백이 아쉽다.

또 여자부 GS칼텍스의 하계우나 실바는 노련미가 돋보이지만 스파이크의 파괴력과 블로킹 등 수비력이 떨어지면서 팀 공격도는 낮다는 평가다.

지난 시즌 득점왕 레이첼 반미터 덕분에 활약 웃었던 도로공사는 최근 영입한 미국 출신 캐티 존슨이 한국 무대 데뷔전인 5일 KT&G와 경기에서 3득점에 그친 뒤 3세트에는 신인 라이트 하준임으로 교체되는 등 부진해 외국인 선수 때문에 당분간 냉가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오승환 연봉 2억2천만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마무리 투수 오승환(26·사진)이 7일 역대 4년차 최고 연봉인 2억2천만원에 재계약했다.

삼성에는 지난해 4승4패, 40세이브, 평균자책점 1.40을 올리며 프로 사상 첫 2년 연속 40세이브를 달성한 오승환에게 지난해 1억3천만원에서 9천만원이나 오른 2억2천만원을 안겨줬다.



8일(화) ▲07/08 프로농구(KT&G·동부)(18:50·SBS스포츠·XSPORTS) ▲07/08 V리그 여자부(현대건설:KT&G)(16:30), 남자부(한국전력:삼성화재)(19:00·KBS N SPORTS)

9일(수) ▲07/08 칼링컵 준결승 1차전(헬스:에버튼)(04:30·KBS N SPORTS)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판매국(062)220-0551	정든전복가든 육서동 청정 주유소 옆 전복찜전복구이,전복사신,전복 사시미,전복초밥,샌디탕,전복신개탕 ☎(062)951-8959	운남생활용품 광산구 운남동 농협금구지점앞 생활·주방용품,이마트가공파스타,은종정 1만원이상,왕버거/간,왕왕왕,스포츠용품점 ☎(062)431-0659	가마솥한정식뷔페 동구 대인동 25-4번지 한정식뷔페 123,500원 이후에유,닭도리탕 홍어탕,돼지차식,돼지갈비,돼지갈비,돼지갈비 ☎(062)224-8868	일등급수학학원 진월동 대주1차@상기 3층 수학전문학원 ☎(062)671-2345	관광호텔커피숍 수기동 구현대극장앞1층 커피, 맥주, 양주전문 아늑한 분위기 ☎(062)225-7991	문흥골세피시·활어 문흥동 문흥파출소위 신지적출, 자연산전문 ☎(062)264-6611	
전주소주방 안림동 안림주공@앞 퐁퐁이 인주 일절 대표 김인숙 ☎(010)7570-2833	연합지게차 남구 방림동 남광주 고기도로 밑 * 3년 하이 마스트 5m 지게차,전차증 보유 대표 김한희 ☎(062)676-0038	디엠출판광고기획 중흥3동 한남B/D 3층 신인,중흥,우산,임동진,윌슨,문흥,오찌 풍암,미재,두암,산수,지원,각화동 ☎(062)266-6711	한우하우스 광산구 우산동 1606-18번지 계장배반,생고기,갈비살,꽃등심,생삼겹살전문 대표 변한국 ☎(062)942-1574	수미식당 북구 북동 130번지 갈치초림,꽃게탕,조기매운탕,제육볶음 추어탕,김치찌개,된장찌개전문 ☎(062)511-8293	진조 (주합점) 주월동 라인가든@건너 빅스포원 퓨전호프 소주 주점 ☎(062)676-6001	에덴다방 대인동 소방서 사거리 새로운 커피숍, 수시배달 대표 김계수 ☎(062)224-5233	Violet포크아트 서구 중앙동 풍암고정문앞편 공예(리플랜트),수강생모집(취미반) 인테리어 소품 판매 ☎(062)652-7847
해남활어직판장 방림1동 송림맨션 건너 24시간 포장배달 전문 대표 박경애 ☎(062)675-8538	푸른건강원 중흥동 광주교대 E-미트 맞은편 양파즙,봉어즙,포도즙,개소주,기름치,흑염소 대표 이종현 ☎(062)512-2752	천상태극무자 중흥동 효광 초등학교 후문 시주 궁합(영어로 봅니다) ☎(062)432-4226	누런송아지 북구 유동 16-11번지 생고기,배반,완주갈비,골뱅이,동서,돌솥밥,취 대표 김승길 ☎(062)529-2121	삼겹한판 북구 두암동 우미트점앞 생삼겹살,배반,돼지,생삼겹살,생삼겹살,배반 남자 이트비이트 수시모집 ☎(062)264-1190	황토장어숙블구이 송하동 127-108번지 백반, 신지적출, 손질포장판매 ☎(062)676-7221	귀향정 북구 중흥동 백림호텔옆 고향맛! 해물,생선,생선,생선,생선,생선,생선,생선 대표 문근순 ☎(062)522-2743	푸른건강원 중흥동 광주교대 E-미트맞은편 양파즙,배우,포도즙,흑염소,개소주,봉어즙 기름치,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512-2752
한솔회관 문흥동 광영@후문,생터코아,사거리,단체모임 예약,환영,생선조리 전문점 대표 고주석 ☎(062)264-2059	옛날손짜장 대인동 롯데마트 후문골목 손짜장,간짜장,삼선짜장,탕수육,산채탕수육 전희주문시 신속배달 ☎(062)232-0036	새운뱅크 광산구 송정동 광주은행옆 리모델링 생크레 전문 대표 김용삼 ☎(062)945-6957	한성한우명가 광산구 우산동 1581-2번지 한우전문점 대표 이정남 ☎(062)955-7051	형제자동차공업사 송하동 민남의광주주유소 두편 부분도색, 특수칠처리도색 24시간무로 견인차량대기 ☎(062)674-2666	하삼생고기&감자탕 학동 목회예수장 정문옆 꽃삼겹살,500원,삼겹살,700원,감자탕(28,000) 대표 김창규 ☎(062)224-0398	남송김민정역리원 북구 두암동 마포@입구사거리,신채,과점 책방,백미,관상,생선,생선,생선,생선,생선,생선 동명동에서 두암동으로 이전개업 ☎(062)232-7017	본 때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511-1 김지랑, 배해장국, 우거지해장국 포장해 드립니다. ☎(061)393-6332